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이름	최*수
파견국가	Canada	파견도시	Sault Ste. Marie, Ontario
파견대학	Algoma University	파견기간	2016.08.31~2016.04.17
귀국여부	귀국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알고마대학교는 캐나다 동부에 위치한 수세인트마리 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토론토에서 비행기로 한 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고 미국 미시간주와 아주 가깝습니다. 밴쿠버와 토론토와 같은 대도시와는 정말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캐나다다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활한 자연경관, 맑은 공기, 친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p> <p>학교의 크기는 순천향대학교에 비해 정말 정말 작은 편입니다. 학교 크기가 작다고 들었지만 와서 더 놀랐던 것 같습니다. 수세인트마리가 워낙 눈이 많이 오고 추운 기후이다 보니 네 건물 정도가 십자방향으로 이어져 있는 특이한 건물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규모가 작지만 시설은 신식으로 잘 되어있습니다. 특히 GLC라는 체육관의 시설이 정말 좋습니다. 내부에 헬스장, 경기장, 스포츠교실(요가, 필라테스, 스피닝 무료수강 가능) 등이 있습니다. 도서관도 깔끔하고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인 편입니다.</p> <p>캐나다라는 나라 자체가 다인종을 추구해서 그런지, 알고마대학교에도 여러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이 있습니다. 캐나다 학생들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일본, 유럽권 등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인종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인종에 상관없이 친구를 사귄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종차별은 당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캐나다의 타 도시에 비해 한국인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p>

수업	<p>전공과목으로는 주로 Business Administration, Economics 분야를 들었습니다. 교양은 English, Mathematics 분야를 들었습니다. 경영학과 경제학분야의 과목은 많은 편이어서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과에서 경영학원론, 경제학원론, 마케팅, 회계학원론 등을 듣고 왔기 때문에 prerequisite이 있는 과목이어도 구매 받지 않고 원활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강신청 후 시간표를 확정 짓기 위해 많은 과목들을 청강해 보았습니다. 그 중 Finance, Sociology 과목은 배경지식이 거의 없어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교양과목은 타 학교에 비해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p> <p>다.</p> <p>거시적인 수업방법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p> <p>다. 다만 의견교환과 토론이 자유롭고 교수님과의 관계가 매우 수평적이었습니다. 수업시간은 순천향과 비슷하게 한 시간 반씩 나누어지는 수업이고 때로는 세시간을 연달아 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수님들의 인종도 다양한 편입니다.</p> <p>교환학생 생활 중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절대평가라는 점입니다. 교수님들도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게 Pass를 주시려고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English Writing 수업에서 요구하는 에세이에 어려움을 겪어 Robert Cooper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용해서 어려운 공부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교수님이 원하는 점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교수님께 여쭙보는 일들이 자연스러웠습니</p> <p>다.</p> <p>위에도 언급했듯이, 알고마대학교에는 교환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가 제 1의 언어가 아닌 교환학생을 배려해 점수를 잘 주는 너그러운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제 학업능력을 많이 키워준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 생활 중에는 최대 15학점 정도 밖에 듣지 못해 어떻게 보면 여유로울 수도 있지만, 매 수업마다 진행되는 퀴즈와 과제들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p>
----	---

<p>프로그램 운영</p>	<p>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Algoma U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인데, 수세인트마리 주변의 마트, 산, 공원 등을 소개해주며 함께 다니곤 했습니다. 또한 다른 교환학생들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저희 학교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담당자는 한국인 분 이십니다.</p> <p>또한 첫 학기에는 각 교환학생마다 멘토가 배정되며, 그 멘토와 함께 여러가지 활동들을 하는 ASAP (Algoma Student Ambassador Program) 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Blu라는 인맥이 넓은 멘토의 도움으로 textbook을 싸게 얻고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과 그 외 다수의 학교행사들에 정말 많이 참여했습니다. 가을에는 하이킹, 캠프파이어, 문화교류, 파티 등을 즐겼으며 겨울에는 썰매, 스키 등을 즐겼습니다.</p> <p>교내에는 학생들의 학업능력향상을 위한 작은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Writing Lab, Math Lab, Mental health 를 위한 상담실 등, 학생 복지가 잘 되어있는 편입니다. 특히나 저는 Writing Lab을 잘 이용했습니다. 에세이나 과제 제출 시 어려움을 겪었던 저에게 기초적인 문법, 형식, 논리 등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는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편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10월 말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4월까지도 눈이 내렸습니다. 기후는 평소 비나 눈이 많이 내렸고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이상하리만큼 온도가 그리 낮지 않고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평소에는 영하 30도, 눈이 30cm정도로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p>
안전	<p>아마 수세인트마리처럼 안전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친절하고 착한 마을사람들, 범죄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도 혼자 산책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캐나다 서부인 BC주 (밴쿠버 쪽) 은 마리화나가 합법이며, 동부인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수세인트마리 쪽)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마약을 하면 불법이니 마약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O)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제가 사는 곳은 Townhouse 였습니다. 1층에 주방(오븐, 인덕션, 전자레인지, 냉장고)과 거실, 작은 화장실, 개인 방 1개, 2층에는 개인 방 4개와 큰 화장실이 있습니다. Townhouse의 큰 장점은 음식을 직접 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다른 기숙사보다 룸메이트와의 소통이 중요하고 시끄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Old Dorm이나 New Dorm과는 다르게 거실에서 파티를 열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조용하고 편안하게 있자는 주의여서 가끔 룸메이트들이 시끄럽게 파티를 열 때 힘들었습니다. 통금시간은 없으며 이성출입이 자유로운 편 (단, 밤에는 금지) 입니다.</p>
식사	<p>학교 Meal Plan () 학교식당 개별이용 () 홈스테이 ()</p> <p>외부식당 () 직접 요리 (O) 기타 ()</p> <p>가끔 교내의 카페테리아에서 사먹기도 했지만 패스트푸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저는 주로 Townhouse에 있는 주방에서 직접 해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장을 봐와서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도 사는 재미 중 하나였습니다. 주위에 한국식당, 한인마트가 없었기 때문에 가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위사람들 덕분에 한국음식에 가까운 맛있는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p>
교통	<p>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학교는 걸어 다녔습니다. 첫 학기에는 한 장에 \$160인 semester pass를 샀습니다. 이 카드로 여러 마트들, 다운타운, 레스토랑에 가곤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학기부터는 날씨가 급격히 추워 지기도 하고, 가본 곳은 다 가보았다고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semester pass를 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학기에는 친구와 나눠 쓰거나 아예 사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p> <p>수세인트마리는 여행하기에는 그다지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없고 택시로 약 \$50를 지불해야 하거나 친구 차를 빌려 타고는 했습니다. 대도시인 토론토로 가려면 최소 \$100 ~ 최대 \$200이상의 항공료를 지불하고 한 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사실 캐나다가 매우 넓고 에어캐나다가 독점하는 나라이기에 항공료가 비싸서 여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비행기 티켓과 숙박을 예약하신 다면 괜찮습니다.</p>

4. 소요경비

2015년 09월~2016년 04월의 평균적인 캐나다달러 기준 (\$1=900원) 단위: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왕복 총 2,075,500원	한국-토론토 왕복: 1,775,500원 토론토-수세인트마리 왕복: 300,000원
Fees	첫 학기에만 360,000원	15학점 기준
보험료	8개월에 367,200원	자매대학에서 의무적으로 권하는 보험 구매, 해외여행자 보험은 사지 않았음
숙소	Townhouse: 4,855,500원	두 학기 비용을 한꺼번에 지불
식비	400,000원x8개월=3,200,000원	
교통비	Semester pass: 144,000원	한 학기 내내 버스 이용가능
책값	두 학기에 약 200,000원	멘토의 도움으로 중고로 싸게 구입, 책은 2주정도 수업 들어보고 꼭 필요한지 판단 후에 것을 권장
통신비	36,000원x7개월=252,000원	Fido통신사를 이용
기타2		
기타3		한 달 생활비는 약 700,000원
합계	총 11,454,200원	여행비용 제외

INVOICE



To: YEON SU CHOI

MAKE ALL CHEQUES PAYABLE TO:
Algoma University
1520 Queen Street East
Sault Ste. Marie, ON Canada P6A 2G4
Ph (705) 949-2301 Fax (705) 949-6583
www.algomau.ca

Date: July 21, 2015

Invoice # 149665720

Description:	Amount (in Canadian dollars):
Exchange Program Tuition	\$ -
Ancillary Fees (based on 15 credits)	\$ 400.13
Accommodation Fees - Townhouse (\$5260 + \$100 damage deposit + \$35 application fee)	\$ 5,395.00
Meal Plan	\$ -
University Health Insurance Fees (8 months - mandatory)	\$ 408.00
Balance Due	\$ 6,203.13 CAD

If you require a Bed Bale package (bedsheet, pillow and comforter), please contact our Housing Coordinator, Rose Linklater, at rose.linklater@algomau.ca by Friday, August 14, 2015. There will be an additional cost of \$65 which is not included in this invoice.

5. 출국 전 준비사항

캐나다 학생비자를 준비하실 때 꽤나 번거로우실 겁니다. 저는 비자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서류 하나하나 다 준비해서 비자를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비자준비과정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정말 꼼꼼히 찾으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도중에 밴쿠버를 경유해서 비자심사를 받았는데, 밴쿠버공항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비자심사 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로 가는 비행기를 놓쳐 고생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른 한국인 친구의 경우, 토론토에서 비자심사를 받았을 때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자심사는 밴쿠버보다 토론토에서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실 때 패딩 같은 두꺼운 점퍼는 두 개 정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구스가 쌀 것 같지만 비쌉니다. 사실 와서 옷 종류보다는 음식이나 생활용품 구비가 더 중요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옷을 많이 가지고 온 편이었지만, 수세인트마리의 사람들은 패션에 민감하지 않고 누가 무엇을 입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편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의복만 가져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쇼핑할 곳이 생각보다 별로 없기도 합니다. 또한 눈과 비가 워낙 많이 오는 곳 이기 때문에 뒷굽이 쉽게 무너지는 어그부츠보다 튼튼한 레인부츠나 윈터부츠를 사시는 것을 권합니다. 윈터부츠는 직접 오셔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식당, 한인마트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끔 한국음식이 그리웠습니다. 마트에는 몇 가지 컵라면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실 때 한국음식을 많이 가져오시거나 택배로 받으실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어로 된 책 (캐나다여행 관련 책 포함) 도 몇 권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책이 그림고 한국어가 잊혀질 것 같을 때쯤 읽으면 좋았습니다. 한국인이 많이 없는 도시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문화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한국기념품을 사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생활용품을 가져오시느라 짐을 너무 크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한 생활용품은 좋은 품질로 팔기 때문입니다. 다만 몇 가지 한국화장품은 여러 개 구입해 오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여성들은 생리패드가 아닌 탐폰을 주로 쓰기 때문에 생리대 품질이 별로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한국산 생리대를 많이 챙겨왔습니다. 하지만 쓰고 보니 캐나다산도 꽤 좋았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저에게 약 8개월 간의 캐나다 교환학생 생활은 의미가 매우 큼니다. 출국 하기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마주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겪었던 심각한 Speaking문제, 강의를 하나도 못 알아 들었는데 과제를 해야 할 때, Organizational Behavior 중간고사에서 30점을 받았을 때, 부모님과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정말 외로울 때 등등... 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정말 작은 일들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제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이라는 경험은 단지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살아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만드는 소소한 결정들 속에서 제 자신을 찾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교환학생을 위해 달려온 1, 2학년 동안 'What?'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How?' 제 성격은 어떤지, 'Why?' 공부를 왜 해야 하는 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귀국 후 아직도 무엇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만, 제 성격과 가치관에 있어서 크고 작은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길지는 않지만 두 학기 동안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 진학, 외국계기업 취업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직 부족한 실력이지만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여 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합격과 성공적인 캐나다 생활을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신 가족, 친구들과 순천향대학교에 감사합니다.

+) 소소하지만 도움될 만한 제 개인 블로그 주소를 적어두겠습니다.

<http://20record.tistory.com/>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Townhouse 1층 주방



Townhouse 외관



Townhouse 1층 거실



GLC에서 Volleyball



학기 초 Frosh Week 기간 중 행사



Agawa Canyon 등반



멘토들, 멘티들과 함께하는 ASAP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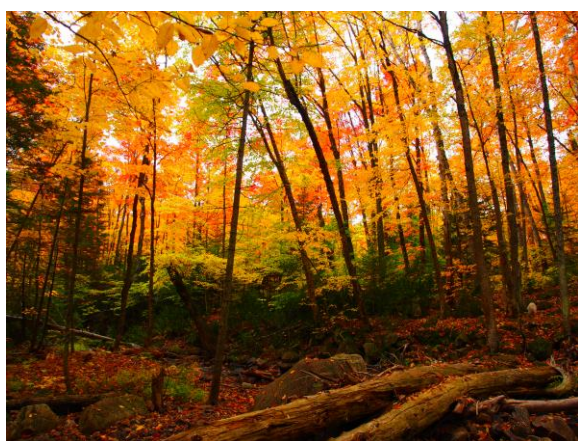
멘토들, 멘티들과 함께하는 ASAP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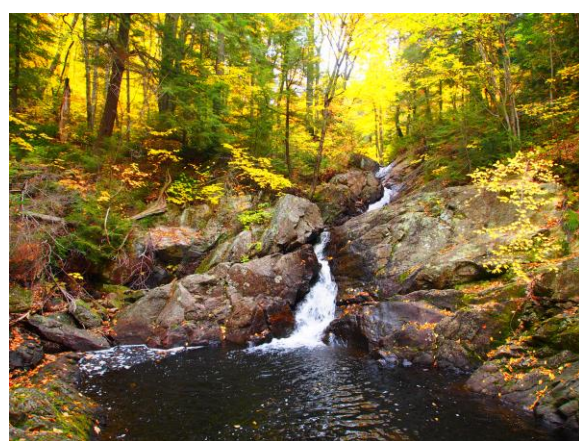
친구네 집에서 Asian Food Party



Exchange Student를 위한 Barbecue Party



Thanksgiving Day, 친구네 집 근처 숲



Thanksgiving Day, 친구네 집 근처 숲



Thanksgiving Day, 친구네 가족들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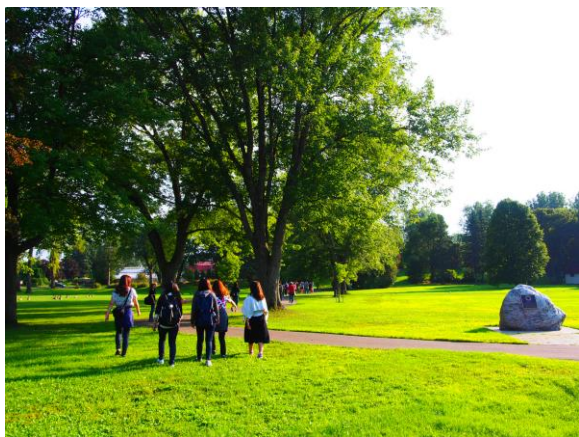
Thanksgiving Day, 친구네 집에서 저녁식사



학교 근처 Hiawatha Mountain 하이킹



학교 근처 Hiawatha Mountain 하이킹



학교 근처의 Bellevue Park



학교 근처의 Bellevue Park



학교의 가을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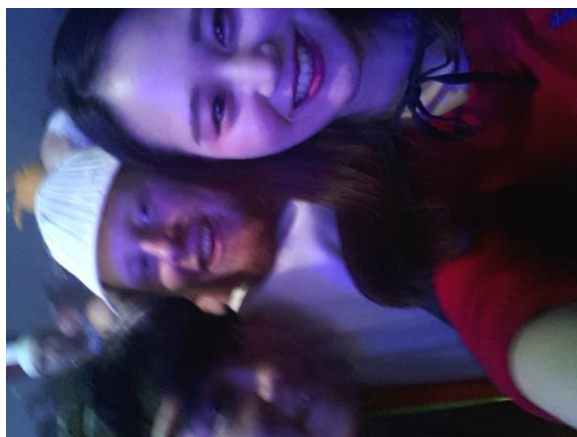
한 겨울에 탄 말이 끄는 썰매



크리스마스를 맞아 꾸며놓은 어느 집



Halloween때 룸메이트들이 꾸며놓은 문



Halloween때 클럽파티



Halloween때 친구네서 호박 깎기



Halloween 때 Exchange Students 모임



크리스마스를 맞아 친구네서 쿠키 만들기



교회에서 지역주민 분들을 위한 봉사



친구들이 해준 생일케이크



Laura 라는 친구 생일파티



학교 주변의 카지노



체육관에서 바라본 학교의 겨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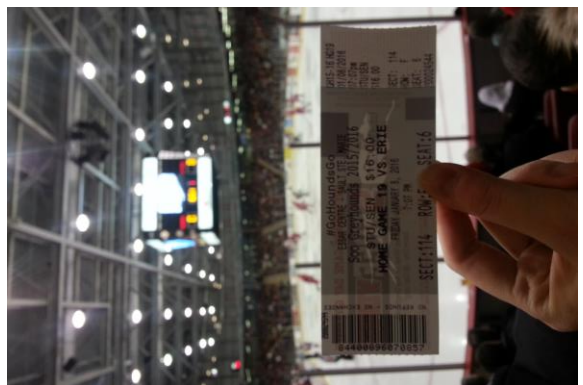
한 겨울에 학교 앞 거리



학교에서 간 스키장



Cafeteria에서 학생들의 Jazz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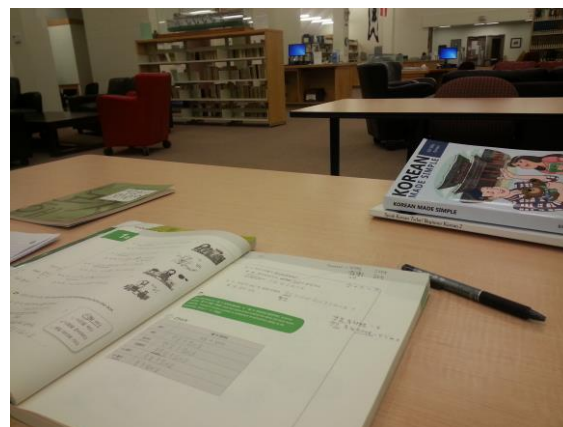
학교 주변에 하키장에서 하키게임 관람



학교 주변 스키장에서 진행된 Leadership Camp



Leadership Camp Certificate



Mat와 함께한 한국어과외



한국어 과외를 해 준 Ela와 Chantelle



밴쿠버여행 때 관람한 미국vs.캐나다 하키경기



밴쿠버여행 때 가본 Stanley Park의 English Bay



토론토여행 때 가본 Nathan Phillips Square